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백희종 삼령산업 대표

산업용 로봇 해외시장 도전장

올해 매출 95억원 목표

장래인 고용 촉진 앞장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기술혁신형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올해에는 기술·제품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4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한 '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5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백희종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한 '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5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백희종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는 기존의 해외공장 외에 미국시장을 노크해 목표액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삼령산업은 산업용 로봇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령산업은 지난 2004년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세탁기 탈수조 조립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했다. 이어 이 컨트롤러를 응용한 자동화 라인을 생산 현장에 설치, 공장 자동화를 이뤄

냈다.

백 대표는 “급변하는 해외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전·로봇 개발에 관심을 갖겠다”면서 “아울러 계열사인 인아비나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45명의 직원을 보유한 삼령산업은 2006년 99억9천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 77억9천200만원으로 후퇴했다가 올해에는 95억원 매출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중소 경쟁력 강화 69억 투입

전남도·중기청 공동 올 산학연협력사업 추진
시·군 특산자원 활용 과제도 연구·개발 지원

전남도가 올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69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80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20개 산학협력실 지원, 25개 기업 부설연구소 지원 등에 나선다.

도는 또 신규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희망

업체를 조사하고, 시·군이 추천하는 특산자원 활용 과제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도내 22개 산학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결과 ‘매우 만족하고 있다’가 57.1%, ‘만족한다’가 42.9%로 조사되는 등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참여기업의 85% 이상이 ‘사업

참여 후 기술개발로 제품생산·공정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순천의 (주)엠포엠은 가장 효과적인 천연생약재의 자외선 차단제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사업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품화가 완료되면 연간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주)에바다는 멀치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22%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 상품화에 성공해 미국에 9천만원 상당의 첫 수출실적을 올렸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중소 기술지원 설명회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오는 1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주요 10개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2008년도 지원계획,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이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gj-sm-ba.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062)360-9132~7.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설자금 3,700억 풀렸다

韓銀광주전남본부, 지난해보다 14% 증가

설날을 앞두고 한국은행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된 ‘설 자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까지 광주·전남에 공급된 ‘설 자금’은 총 3천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천299억원)에 비해 14.2%(470억원) 증가한 것으로, 설 연휴가 지난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 데다 월말 자금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설 자금’은 설날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의 현금수요를 의미하며, 설 5영업일 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측은 설 연휴후 10영업일간 ‘설 자금’의 80~90%가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설 연휴 전 10영업일 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된 ‘설 자금’은 4조2천9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4조2천613억원)보다 15.3%(6천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산물 소비 기여 감사패

이덕수(가운데)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관련단체로부터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왼쪽부터 배삼태 가톨릭농민회장, 이상인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장, 이덕수 전남농협본부장, 이명숙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회장, 양혁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주)휴렉스 → (주)포엠아이 컨설팅 사명 변경

국내 최고 경영컨설팅사 새 출발

(주)휴렉스가 지난 1일부터 ‘(주)포엠아이 컨설팅’(POMIC·대표 조원래)으로 사명을 바꾸고 선진 혁신문화를 전파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경영컨설팅 회사를 향해 새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2005년 포스코의 HR(Human Resources) 분사법인 휴렉스로 출발한 (주)포엠아이 컨설팅은 기존의 경영교육 업무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포스코 인재개발원의 혁신교육 업무를 추가 수행하며, 범 포스코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포엠아이 컨설팅은 앞으로 ‘Sigma’, ‘혁신캠프’, ‘도요타 벤치

마킹’ 등의 혁신 마인드 제고 교육과 ‘계층별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적응교육인 ‘Green Life Service Program’ 등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경영 혁신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혁신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김상면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해 송병원 외주파트너사 협의회 대표 조원래(주)포엠아이 컨설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포엠아이 컨설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범식을 갖고 컨설팅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새학기 교복값 담합 인상 끔찍마!

공정위 전국 5곳 신고센터 개설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값이나 대학등록금,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을 통한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5일 본부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에 학원비와 대학등록금, 교복가 등의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행위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또 교복업체들이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 경쟁제공행위 등에 대해 주시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인세 과세기준 2억으로 상향

인수위 법인 세율도 10%로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이 대상 법인에 대한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기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5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저율과세 기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올린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과세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25%를 20%로 5%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매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1안으로 보고했

으며 2단계에 걸쳐 인하는 방안은 2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낮은 세율 13%도 3차례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내려 10%로 낮추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10%도 8%로 낮추기로 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비교세 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실속확장사업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그동안 일식요리는 요리사에 한정되었으나 청하가 최초로 일식요리 장사 주점으로 일식요리 전문점을 개업시켜 일반인들이 맛있게 일식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회 단체원영 / 주차장원비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4가길 1번지
부지번호 041-223-7037 / 224-5002

베이징 카오야

중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베이징의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카오야는 이러한 관심에 응하여, 한국에 베이징 요리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북경 동오더구이

북경 동오더구이는 중국 요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북경 동오더구이는 중국 요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각종 단체 모임 및 집회 단체원영 / 주차장원비

972-5282